

라투비아 사람들의 고민

지난 주 라투비아(Latvia)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90세가 넘는 할아버지들과 할머니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젊은 여성이었다. 모두 라트비아인들이었다. 교회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시작된 대화가 그들의 문화와 라투비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이 길어졌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라투비아 사람들이 이곳 포틀랜드에도 있어서 그들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하고 센터를 건축했던 것이다. 그들의 모임은 이곳에 있는 라투비아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고 같은 나라 같은 문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짧게 설명하자면 1차 세계 대전으로 구 소련에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짓밟히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에 점령을 당하여 소련 사람들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역시 포로의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었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북 유럽과 독일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처와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작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 동부와 서부에 자리를 잡는데 오레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그 후 이곳에 센터를 만들어 그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다음세대에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많은 라투비아 사람들이 오레곤에 있는지 물으니 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많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후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진짜 라투비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건물도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난 75년 동안 지켜온 장소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분과 같이 90세를 넘길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기도하며 노력도 했지만 이민이라는 현실과 시간의 변화라는 상황 가운데 경험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와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한다면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더욱 강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문화적인 변화와 시대에 상황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옆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변화하고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선물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센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가? 센터는 없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없어질 수 없고 문화의 변화에도 상관없는 생명인 것이다.

다음세대와 그 다음세대가 1세들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여도 상관없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세대의 문제가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답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믿음생활을 버리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다.